

# 상생뉴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철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수상



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제4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2개 부문에 걸쳐 대통령상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예선을 통과한 299개 분임조 3,000여명 분임조원들이 13개 부문에 참가해 기업의 경영성과와 직결되는 원가절감, 품질혁신, 생산성 향상, 고객만족 제고 등의 추진성과와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선의의 열띤 경쟁을 벌였다.

공단은 CoP부문에서 '위험매설물 임대기준 개선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주제로 대통령상 은상을 수상했다. 주요개선 내용은 철도부지내 위험매설물도 일반매설물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관로 안전보호면적을 사용허가 면적에 포함시키고 위험매설물 매설정보를 업무 담당자와 임대 사용인이 알 수 있도록 임대시스템을 개선, 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매설물 폭발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철도시설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사용허가 면적 확대를 통하여 12억 6백만 원의 수익도 추가로 창출하는 등 일거양득의 성과도 거두었다.

환경안전품질부문에서는 '폐철도자갈 처리방법 개선으로 건설폐기물 감소'라는 주제로 대통령상 동상을 수상했다. 기존 철도를 확장하거나 개량하는 구간에서 레일, 침목, 전철지주, 전차선, 철도자갈 등을 철거하고 있으나 유독 철도자갈만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점에 의문을 갖고 개선방안을 찾은 결과 토목공사 건설자재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85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강영일 이사장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왜?'라는 물음을 던지며 변화와 혁신을 지향해 온 산물들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2014 대한민국 퇴직연금 대상'에서 '대상(大賞)' 수상

- 특화된 보장형 DB제도 도입 등 공공기관 모범 -



공단(이사장 강영일)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및 한국노총이 후원한 「2014 대한민국 퇴직연금 대상」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 Benefit)분야 대상(大賞)을 수상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예치하던 퇴직금 제도를 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에 예치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선진화된 제도이다.

올해 처음 열린 「2014 대한민국 퇴직연금 대상」은 고령화시대에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시상식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사 사옥에서 시행됐다.

평가 주관사인 머스코리아 관계자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 중에서 수익률, 안정성, 포트폴리오, 교육수행, 기금운영위원회 조직 등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경희대 교수 등 7인)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선정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① 2007년 12월 준정부기관 최초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공공기관을 선도하는데 모범, ② 업계 최초로 특화된 보장형 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③ 매년 3분기 이후 사업자별 실적평가를 통해 수익률 우수사업자에 최고 50%까지 적립금을 차등 배분함으로써 성과주의에 입각하여 제도를 운영, ④ 주간사 제도를 두어 소통창구를 단일화해, 사업자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면서 운용수익률 제고에 힘쓰게 하는 등 퇴직연금 운영사업자와 상생협력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노무처 관계자는 "내년 1/4분기에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실적이 우수한 연금운영사업자(7개)를 추가 선정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저금리 지속 및 인사제도 변화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올해 처음으로 퇴직연금제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연금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전국 VE경진대회 4년 연속 '국토부 장관상' 수상

- 철도건설사업의 품질 및 가치향상 노력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

공단(이사장 강영일)은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2014 전국 VE경진대회」에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노반 실시설계 VE'로 우수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7번째로 열린 「2014 전국 VE경진대회」 시상식은 경기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3일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은 '08년부터 대회에 참가한 이래 철도건설 부분의 설계 최적화와 예산절감 노력을 인정받아' 11년부터 '14년까지 4년 연속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 11년 : 우수상 수상, \* 12년 ~ 13년 : 최우수상 수상

이번 대회 수상작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실시설계 VE'는 공단의 VE부서와 설계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628억원의 원가절감 성과를 이루었으며 주요 개선 및 성과는 ▲열차운영계획 재검토로 정거장 규모 및 승강장 위치 조정 160억원 절감 ▲국도 통과구간 구조물 형식 변경으로 34억원 절감 ▲교량 경간장 및 상부형식 통일로 12억원 절감 ▲터널공동구 덮개 제작 시 사용재료를 개선으로 2억원 절감 및 개선 등이다.

설계기준치 관계자는 "VE를 통해 '10년 이후 올해까지 약 1조2,667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밝히며, "개선 아이디어를 설계기준에 반영하는 등 피드백 활동은 물론 적정설계 및 고품질의 철도건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 착공!

- 수도권남부 교통허브로서  
중추적인 역할 기대 -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오산시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오산역 주변의 분산된 교통체계를 한곳에 집중시키기 위한 '경부선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자 선정을 완료하고 지난달 20일 오산역광장에서 기공식을 시행했다.

\*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공사 : 동서건설(주)의 1개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주)건화외 3개사

본부는 환승센터 건설공사를 철도운영선 상부에서 열차가 통행하지 않는 새벽시간에 시행할 계획으로 공사 위탁기관인 오산시 및 철도운영자인 KORAIL과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성해 2017년 5월 적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설처 관계자는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 분야의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사업관리 Know-How와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산역 환승센터가 수도권남부 교통허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관리로 최상의 고품질 환승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전했다.

- 위 치 : 오산시 역광장로 59(오산동) 일대
- 사업기간 : 2012. 01 ~ 2017. 05 (실시설계기간 포함)
- 사업량 : 오산역 앞 광장 및 환승센터  
[ 시설 총면적 12,591㎡(건축면적 4,578.56㎡)  
- 지상 1층 : 시내 및 마을버스, 택시, 자가용, 자전거 등 환승  
- 지상 2층 : 전철, 국철, 시외 및 고속버스 등 환승

## 호남고속철도 익산역사 11월 29일 사용 개시!

- 동서연결 통로 개통으로 지역단절 해소 효과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호남고속철도 익산역사 건설을 완료하고 지난달 29일 00시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본부는 2012년 7월 익산역사 건설을 착공해 올해 10월 공사를 완료했으며 지난 11월6일 국토 부로부터 1)준공전 사용허가를 받고, 11월21일 장애인협회 등 철도역사 이용자가 참여해 사전 점검을 마쳤다.

1) 준공전 사용허가 : 사업 준공전 우선 건설된 부분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사전승인을 받는 것

전라선, 호남선, 장항선 관문에 위치한 익산역은 1일 1만8,300명이 이용 가능한 연면적 3,104㎡ 규모의 초현대식 건물로 건설했으며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과 태양광 발전, 승강설비(엘리베이터 7대, 에스컬레이터 12대)를 갖췄다.

특히 본부는 익산역 사용개시와 함께 철도로 양분된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도 동시에 개통해 지역단절을 해소하는 한편 KTX 이용객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본부 건설·기술처 관계자는 "신설 역사 영업개시 후 기존임시역사는 철거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익산역사 개통으로 익산시에서 추진 중인 복합환승센터 건설도 탄력을 받아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